

여섯째주 Week 6

이사야 40:1-11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 (“Our GREAT God Brings Comfort”)

여는 기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이 주는 무게에 짓눌려, 때로는 삶 가운데 마주 하는 어려움과 씨름들로 인해, 움푹달싹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한 저희를 발견합니다. 저희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허공의 메아리와 같이 부질없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것은, 당신께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돌려,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당신으로 인해 더욱 새로워지고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읽으세요. 서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 특별히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혹은 잘 이해되지 않아 관심을 끌거나 궁금증을 자극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나요?

위안(“comfort”)이라는 개념은 편안한 안락의자(“La-Z-Boy recliners” — 편한 등받이가 있고 뒤로 젖혀 누울 수 있는 종류의 의자 - 역주)로부터 시작해서 로얄 케리비안 유람선(“Royal Caribbean Cruise”)에 이르기까지 구름과 같이 수많은 이미지들을 우리 머리 속에 떠오르게 합니다. 영미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위안 음식” (“Comfort food” – 그리운 옛맛을 떠오르게 하는 음식을 일컫음 -역주)이라는 표현은 우리 안에 있는 독특한 향수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친숙한 음식들을 가리킵니다. “크리처 컴포트” (“Creature comforts” — 육신과 삶을 안락하게 하는 물품들을 가르킴 - 역주)라는 표현 역시 최대한의 육신적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호화로운 물품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위안”(“comfort”)이라는 단어는 따듯하고, 편안하며, 행복감을 주는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안”의 개념을 강함(strength) 또는 힘(power)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위안은 길고 고단했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편안히 앉아서, 커피를 조금씩 훌쩍거리며, 난로 앞에 앉아 편안히 장작 위에 타오르는 불을 구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위안은 이렇게 안락함을 전해주는 개념(“soft concept”)으로 여겨집니다. 위안은 “일하는 행위”(“working”)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위안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Comfort”는 라틴 어원인 “cum-fortis” (의미 인 즉, “강함과 함께”(with strength))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에, 위안의 신학적인 개념은 강함(“with muscle”)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부드럽고 편안함을 상징하는 안도의 한숨을 지시하기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위안은 참된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힘차고 대담한 (bracing and in-your-face)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참된 위안의 깊이를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는 흔들리고, 불편한 자리에 놓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 장 역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비록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 위안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구절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암시하고 있는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의 입을 통해 선포된 위로는 오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참된 의미를 지닙니다. 그와 더불어, 2 절 말씀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 그들 자신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위안은 상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들이 아닌,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삶 가운데 이미 고통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구절들은 우리 삶 가운데 들쭉날쭉 솟아있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과 마침내 그 안에서 찾아오는 참된 위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 절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길은 사막의 한 가운데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주로 악(evil)과 어둠의 장소로 묘사되는 황무지의 한 가운데에서, 깊고 지속되는 평안을 향한 자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묘사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주된 내용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장소는 삶의 가장 추악한 곳(ugliness) 한가운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모두는 우리를 황무지의 한 가운데에서부터 이끌어 내주실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쉽게 부서지는 잔디와 같아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견져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위안을 얻기 위한다면, 우선적으로 삶 가운데 어렵고 추악한 요소들을 산재해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황무지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풀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제대로 조명해 본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사야 40 장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목자의 팔안에 아늑히 안겨 있는 양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된 목자로 묘사하신 것에 비춰볼 때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목자의 이미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안을 주지 못하는 경우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막 황무지로부터 우리 스스로는 결코 고속도로를 낼 수 없기에,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안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돌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존재들이 아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속해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이 결코 그들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복음의 메시지에 이미 익숙히 젖어 있는 이들에게는 기독교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귀에 이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들려질지 상상해 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중 어떤 들에게는 선한목자의 이미지를 보고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자들을 기이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이해해 봅시다. 이 이미지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우리 중 어떤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향(its radical nature)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사야 40 장은 위안을 주는 훌륭한 메시지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 오랜 고난을 견뎌온 사람들에게 찾아온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0 장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할 의지가 있을때만이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위안과 평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쉼의 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토론해볼 주제:

우리의 죄성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온 예수님의 성육신(the Incarnation)으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과 새창조의 소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 한분만이 우리를 참된 평안(shalom)의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교회의 창문을 잠그고, 오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논의들에만 초점을 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과 회복의 소망을 보지 못하는 방해하곤 합니다.

- “권능을 입어”(“with strength”)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 위안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 중 “권능을 입어”(“with strength”)라는 표현에 내재되어 있는 권능이 누구의 권능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권능을 의미합니까?

- 하이델베르크 신조는 크리스찬개혁 교회(CRC)의 한 신앙고백문입니다. 그 가장 첫번째 질문과 답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 “삶과 죽음 가운데 오직 하나뿐인 당신의 진정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답 - “나는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답이 당신께 위안으로 다가옵니까?
- 당신은 어느때에 “사막과 같은 순간들”(“desert moments”)를 맞이한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그 분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셨습니까?
- 11 절을 읽을 때 당신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과거에 이 그림언어(imagery)가 당신의 삶 가운데 위안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이 그림언어가 당신께 지금은 새롭거나 혹은 다르게 느껴집니까?
- 어떻게 고속도로를 짓는 메세지가 위안과 관련이 있을까요?